**OECD Step 5 공개실사 보고서 – (2020년)**

|  |
| --- |
| **1.회사 정보** |
| 회사 이름 | 코스모화학㈜ |
| CID번호 | 207-81-57379 |
| 회사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55 |
| 처리된물질 | 코발트 |
|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 2019년 7월 ~ 2020년 6월 |
| 보고서 작성 날짜 | 2020년 8월 18일 |
| 보고서 작성 책임자 | 남윤기 |

**2. RMAP 평가 요약**

코스모화학㈜는 한국 정/제련소가 광물을 책임감 있게 공급할 것을 약속한 한국 도시 광산 협회의 회원이며 아래와 같이 RMAP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평가 날짜: 해당없음
* 평가 기관: 해당없음
* 평가 기간: 해당없음
* 평가 요약 보고서: 해당없음

**3. 회사 관리 시스템**

# 책임 있는 공급망 정책

# <http://www.cosmochem.co.kr/index.php/scm/>

# 회사 관리 시스템

* + - 코스모화학㈜는 RMAP 평가 외에도 ISO 9001인증을 획득하였고 그 관리 시스템을 책임 있는 공급망 정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코스모화학㈜ 대표이사는 실사 프로그램 및 위험 관리 설계와 이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 코스모화학㈜는 책임 있는 공급, 실사과정을 포함한 공급망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련 부서(구매 부서, 품질 부서, 생산 부서 및 창고 관리 부서)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실사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합니다. 공급망 관리 책임자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 코스모화학㈜는 1 년에 한 번 실사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관련 부서의 주요 인력에게 실사 관리 시스템 교육을 실시합니다.
		- 효과적인 실사 관리 프로그램을 위해, 정기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OECD 지침과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코스모화학㈜는 실사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최소 5 년 동안 유지 관리합니다.

# 고충처리 절차

* + - 코스모화학㈜는 RMI의 고충 처리 절차를 활용합니다.
		- 고충 처리 절차를 포함하여 본 규범에서 다루는 관행 및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드백이나 위반 사항을 접수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지향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http://www.responsiblemineralsinitiative.org/rmap/grievance-mechanism/>

**4. 위험 평가**

코스모화학㈜는 공급망의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위험 평가 절차를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코스모화학㈜의 공급망은 재활용품 공급업체 그리고 공급업체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코스모화학 ㈜는 공급업체에게 “공급 업체 파악하기”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 코스모화학 ㈜는 RMI공급망 파악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 공급업체가 RMAP 준수 제련소인지 확인하였습니다.
* 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관하였습니다.

코스모화학 ㈜는 분쟁지역 및 고위험 지역 식별을 위해 아래 자료들을 이용하였습니다.

* RMI의 “국가별 위험 평가” 도구 (각 지역별의 다양한 위험들 식별, 비교)
* 미국 분쟁광물 법령에 명시된 국가 리스트 (콩고 민주 공화국과 주변 9개국, 앙골라, 부룬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5. 위기 관리**

코스모화학㈜는 모든 광석을 대상으로 분쟁 및 고위험지역에서 인권,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광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KYS(Know Your Supplier)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위험 신호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공급업체를 파악하였습니다.

총 9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고위험군에 속하였습니다. 고위험군에 속한 4개 업체의 경우, RMI 또는 RCI 참여중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1개 업체(터키)에 대해서는 Responsible Sourcing Policy를 확인하였으나 추가적인 위험 완화 사항을 확인시까지 해당 코발트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Low/Medium 위험군에 속한 5개 업체는 Recycled 코발트를 공급하는 업체이며, 1개 업체(국내)는 KYS 제출 미흡 등의 사유로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업체의 경우는 위기관리를 위해 향후 거래 비중을 늘려 가기로 협의 하였습니다.